

#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

최해주 · 정영선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의상디자인 전공교수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의상학과

## A Study on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inimalism Fashion

Hae-Joo Choi · Young-Sun Chung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 Graduate School

(2001. 7. 12 투고)

### ABSTRACT

Fashion photographs from leading monthly fashion magazines in 1960s and 1990s were analyzed here.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inimalism fashion were studied.

The major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1.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of minimalism were expressed as simplicity, minimum, repetition, and futurism.
2. The formative featur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inimalism fashion were expressed as simplicity, minimum, repetition, and futurism in silhouette, shape, detail, trimming, materials, patterns and color.
3. Minimalism in art and domestic fashion were identified to have a relation in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ve feature. In shape and color, simplicity and minimum showed analogy while repetition and futurism showed difference.
4. Simplicity and minimum were expressed in both domestic and foreign minimalism fashions, but repetition and futurism were less expressed in domestic fashion.

Key Word : minimalism fashion (미니멀리즘 패션), simplicity (단순성),  
minimum (최소성), repetition (반복성), futurism (미래지향성)

### I. 서 론

복식은 시대정신을 반영하며,<sup>1)</sup>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 미술과 복식은 시대별로 유사한 표현양식을 나타내어 왔으

며,<sup>2)(3)</sup> 현대에 이르러 예술조형은 순수성과 자율성을 추구하게 되었고,<sup>4)</sup> 이와 함께 생활조형 또한 기능주의 조형운동의 결과로 단순한 조형을 추구하게 되었다. 단순한 조형에 대한 추구는 1960년대에 이르러 미니멀리즘이라는 미술양식으로 대두되었으며, 패션에

\*이 논문은 2000년도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있어서도 최소지향적인 표현이 크게 부각되었다.

시대정신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복식은 동시대의 예술과 양식의 공통적인 기반과 근거를 가지게 된다. 20세기 후반에는 다원화, 다양화, 복합화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에 들어서 단순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적인 표현이 패션에 재등장함에 따라 현대 패션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중요성이 다시 재인식되었다.

미니멀리즘이 다시 부각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미니멀리즘이 추구하는 장식적 요소에 대한 최소화 표현정신이 현대 사회의 기능존중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패션에 있어서 중요한 양식으로 등장한 미니멀리즘 패션에 대한 의미를 규명하는 것은 시대 정신과 미술과 패션의 연관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미니멀리즘 패션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국외서양패션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으며<sup>5)6)7)8)</sup>, 국내 패션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미니멀리즘 패션이 21세기를 맞이한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 패션의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 양식의 조형성과 내면 의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니멀리즘 양식의 개념과 조형성을 파악하고, 미니멀리즘 양식과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술 양식과 패션의 연관성을 고찰하며, 국내 패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을 분석함으로써 시대 특성에 따른 국내 패션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 주요 패션 잡지인 여원(1962년 1월~1969년 12월)과 여성동아(1990년 1월~1999년 12월), 한국판 ELLE(1992년 11월~1999년 12월)에 소개된 여성복과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을 고찰대상으로 하여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을 분석하였으며, 작품 사진 선정 기준은 「최소의」, 「단순한」 등의 표현에 적합한 것으로 하였다.

## II. 미니멀리즘 양식

### 1. 미니멀리즘의 개념과 배경

#### 1) 미니멀리즘의 개념

미니멀리즘(minimalism)에서 「미니멀(minimal)」이란 사전에서 'smallest, least possible'<sup>9)</sup>로, 'very little, as little as possible'<sup>10)</sup>로 설명되어 있으며 이는 「매우 작은, 가장 작은」, 「최소의, 극소의」<sup>11)</sup>라는 의미를 가지며, 미술 용어로는 일루전(illusion)의 극소화를 의미한다.<sup>12)</sup>

미니멀리즘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추상적이고 또한 간단한 장식적 세부묘사 마저 결여된 미술로서, 1960년 이후에 등장한 기하학이 강조되고 표현적 기법이 회피된 미술을 지칭한다.<sup>13)</sup> 미니멀리즘은 회화의 감동성과 재료(material)의 교묘함과 풍부함 내지, 자기 표현은 곧 예술이라는 신화를 기본으로 한 종래의 개념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sup>14)</sup>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기본적 요소로까지 환원하는 미술 양식이다.<sup>15)</sup> 이러한 미술 운동을 배경으로 출발한 미니멀 아트는 최소한의 조형 수단으로 엄격하고 비개성적이며 소극적인 화면을 구성하였다.<sup>16)</sup>

미니멀 아트는 1966년 4월 뉴욕의 쥬이쉬(Jewish) 미술관에서 열린 기본구조(Primary Structure) 전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었다.<sup>17)</sup> 미니멀 아트라는 명칭은 영국의 철학자 리하르트 볼하임(R. Wollheim)이 1966년 「Art Magazine」이라는 잡지에서 발표한 「미니멀 아트」론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이후 대중화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미니멀리즘이 하나의 양식으로 인정받게 되었다.<sup>18)</sup>

미니멀리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명칭으로는 「ABC 미술」, 「기본구조(Primary Structures) 미술」, 「차가운(Cool) 미술」, 「구체적 오브제(Specific Objects)」, 「실체미술(The Art of the Real)」 등이 있다.<sup>19)</sup>

이러한 여러 명칭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미니멀리즘은 전통적인 조각이나 회화와는 구별되는 간결하고 추상적이며 기하학적인 미술 양식을 말하며, 또한 본질이 아닌 요소는 모두 제거하고 최소한의 요소까지 환원하고자 하는 예술 사조라고 요약 할 수 있다.

## 2) 미니멀리즘의 배경

하나의 미술양식이 형성되어 전개되기까지는 시대적·사회문화적인 많은 요소들이 배경이 된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은 서구의 중심국가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으며 고도의 경제 발전을 통해 세계 최강의 국가로 떠올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의 많은 작가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주요한 미술운동의 중심이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sup>20)</sup>, 예술의 무대가 미국 뉴욕으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이전까지의 미국의 미술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새로운 미술을 받아들여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와 독일에서 일어났던 전위적 예술이 미국으로 이동함으로써 미국의 현대미술이 급속하게 성장하였으며 미국은 현대미술의 진원지가 되어 다양한 경향의 예술운동을 전개하였다.<sup>21)</sup>

이런 다양한 미술운동 중의 하나가 미니멀리즘이었으며, 미니멀리즘이 나타나기 시작한 1960년대는 미국 미술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때이며, 환경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회화가 3차원의 공간으로 나와 독립된 물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회화에서의 환원된 캔버스는 미니멀 아트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최소한의 예술을 시도하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sup>22)</sup>

이러한 미니멀리즘은 1950년대의 추상표현주의 회화에 대항하여 일어난 고전주의적 반응이며,<sup>23)</sup> 단일한 전체성으로서의 공간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의 자율성, 순수성, 또 예술의 절대자의 혁신으로서 비예술, 비물체, 현실이라고 하는 20세기 미술 특유의 예술 개념의 추구와 관련을 가지고 있다.<sup>24)</sup>

## 2. 미니멀리즘의 조형성

### 1) 단순성

단순성은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형태나 색채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상태, 즉 단순성으로 결론되어지는 단일 형태, 단일 색채 등으로의 환원을 말한다.<sup>25)</sup> 단순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멀 아트의 구성 원칙은 직각, 직사각형, 정육면체 등의 기하학적 추상이거나, 장식적인 세부 사항과

표현적인 기교의 생략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이러한 기하학적 형태는 그 형태가 단순하면 할 수록 보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동시에 전체성이 보여진다는 환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27)</sup>

형태의 단순화를 통한 환원의지는 도날드 저드(Donald Judd)와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에서 비교되는데 저드가 형태를 최대한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에 반하여 모리스는 분리성을 피하기 위하여 '단일 유형의 강력한 형태'를 제시하였다.<sup>28)</sup>

<사진 1>은 로버트 모리스의 작품으로 단일유형의 형태가 강력하게 표현되어 단순성을 나타내고 있다.

### 2) 최소성

미니멀 아트는 회화적인 요소를 극도로 배제함으로써 최소화를 추구하였고, 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본적인 형태로의 환원을 시도하였으며, 주체와 대상간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과 관객, 전시 공간 모두를 요소로 다룬다.<sup>29)</sup> 미니멀 조각의 경우 매개체의 전통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최소한의 감각, 본질을 추구하였다.<sup>30)</sup>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예술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균형감각을 관람자들에게 전달하였고,<sup>31)</sup> 시작적인 대칭으로 작품의 조형적 요소를 최소화하여 제작하였다.<sup>32)</sup>

또한 미니멀 아트는 가공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 사물을 미술로서 제시하였고<sup>33)</sup> 순수하게 최소한의 화면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sup>34)</sup> 최소성을 추구하였다. <사진 2>는 칼 안드레(Carl Andre)의 '자연 구성요소 연작' 중 하나로 가공하지 않은 나무 그 자체를 재료로 사용하여 작품으로 표현하였고 색상의 경우에 있어서도 재질 자체의 본질적인 색상을 표현하여 최소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미니멀리즘에서 추구하는 최소화는 '예술은 완전히 텅빈 상태로까지 감축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sup>35)</sup>

### 3) 반복성

미니멀 아트는 물체간의 계층적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비관계적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반복성을 가진다. 비관계적 구성 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태는 대비나 상호 영향에 미치는 작용을 하기보다는 반복과 연속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의 질서는 내재적이거나 이성적 질서가 아닌 단순한 질서이며 마치 연속하는 것처럼 차례대로 제시된다.

이러한 반복은 전체적인 질서를 중시해서 완전하게 힘의 균형을 고려한 형태의 배치나 강조점이 없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격자무늬 조직 혹은 색상의 변화가 없는 단색화면으로 형성되어 화면 내에서 부분들의 관계보다는 총체적으로 조직을 강조한다.<sup>36)</sup>

저드는 수학적인 정확성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태도로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저드와 스텔라는 상관구도를 유럽의 형식주의적 미술이라 보고 그들 전체 소재의 근본은 균형임을 강조하였으며 상관구도를 피하는 전략으로써 반복성을 취하였다.<sup>37)</sup>

동일단위의 연속적 미니멀리즘이란 개방되어 있는 동일한 물체들이 비례를 이루면서 보다 큰 단위체들을 형성하기 위하여 구성된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물체들은 그 작품이 담고 있는 건축적인 공간을 압도 할 때까지 그 규모를 확대시키기도 한다.<sup>38)</sup>

#### 4) 미래지향성

미니멀 아트는 과거의 예술 개념과는 전혀 다른 급진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발견된 오브제'에 대한 숭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과거에는 쓰이지 않던 합판, 형광튜브, 내화벽돌, 밧줄, 공업용 펠트, 아연, 철, 유리등의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하여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였다. 또한 레디메이드된 공업생산품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공업생산품 그 자체를 직접 사용한 레디메이드에 대해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구체적 내용이 깃들어 있지 않은 요소들을 사용하였다.<sup>40)</sup>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이러한 공업용 재료를 주로 사용하여 모든 정서성을 배제하고 기본적인 질서의 구조물을 만들어 공간 표현을 시도하였다.<sup>41)</sup>

저드는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플렉시글라스(Plexiglass: 상표명, 비행기 창문등에 쓰이는 유리), 아연으로 도금된 철판, 구리, 쇠 등의 공업적이며 비예술적인 재질을 사용하며 공간, 영역, 표면, 규모 등의 지각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였다.<sup>42)</sup>

즉,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스테인레스, 플라스틱, 알루미늄, 벽돌, 합판, 형광등, 유리 등 다양하고 미래적인 공업재료를 사용했으며, 공업오브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변형을 시도함으로써 원래 재료의 용도는 사라지고 재료 자체의 본질만 남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 본질을 체험하게 한다. 과거의 예술 작품에 잘 쓰이지 않았던 공업재료를 사용함으로서 진보적이고 진취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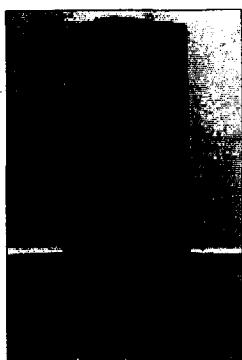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미니멀리즘 양식은 형태, 색채, 재질 등의 조형적 요소를 통해서 단순성, 최소성, 반복성, 미래지향성의 특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의 조형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미니멀리즘의 조형성

| 조형성<br>요소<br>와 작가 | 단순성  | 최소성  | 반복성   | 미래지향성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형태</li> <li>· 기하학적 대칭구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의 본질 추구</li> <li>· 조형수단의 최소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단위의 반복적 배열</li> <li>· 정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하학적 형태</li> <li>· 비재현적 구조</li> </ul> |
| 색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색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질자체의 색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색 두가지 색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명 색상</li> <li>· 은색</li> </ul>        |
| 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 소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공 소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소재의 반복사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용 오브제</li> </ul>                    |



&lt;사진1&gt; Robert Morris, 무제, 1966



&lt;사진2&gt; Carl Andre, 자연구성요소, 1976

### III. 미니멀리즘 패션

#### 1. 미니멀리즘 패션의 개념

현대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사회적 양상이 변하면서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었다. 생활이 다양화되고 활동성이 중시됨에 따라 여성복 패션은 점차 단순하고 기능적인 스타일로 변화하게 되어 미니멀리즘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패션에서의 미니멀리즘은 단순함과 간결함뿐만 아니라 최소한으로 억제된 생략의 표현법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한 느낌을 주며,<sup>43)</sup> 단순미의 극치로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능한 절제, 제거시키고 간결한 직선적인 실루엣을 통해서 표현된다.<sup>44)</sup>

다시 말해서 미니멀리즘 패션이란 합리성, 실용성에 가치를 두고 장식성을 배제한 단순한 형태의 복식을 가리킨다. 복식의 단순함은 1960년대가 그

절정을 이루어 과거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극도로 단순한 형태의 의상들이 등장하였으며, 이러한 특징들이 1990년대에 다시 부각되었다.

장식성을 배제하고 기능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을 발표한 대표적인 디자인을 발표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샤넬을 들 수 있는데, 샤넬은 움직이며 행동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기능적이며 단순한 형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실루엣, 어두운 색과 중간색을 사용한 디자인을 통해 미니멀리즘 패션을 선구적으로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미니멀리즘적인 특성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추구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1960년대 미니멀리즘 패션의 배경과 조형성

##### 1) 국외패션

1960년대는 정치적으로는 캐네디의 암살, 베트남 전쟁, 중국의 문화 혁명, 프랑스의 5월 혁명 등이 전개된 격동적인 시기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가 청소년층으로 등장하여 이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하면서 영파워를 형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시대를 탄생시켰다. 또한 산업의 발달로 경제적으로 호황기를 누렸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져 유행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되었다.<sup>45)</sup>

1960년대 초반에 편안한 물질주의를 추구했던 경향이 후반에는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도전하면서 물질주의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였으며, 여성 해방 운동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비틀즈와 롤링 스톤즈의 음악과 함께 미니 스커트가 전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sup>46)</sup> 이 미니 스커트의 출현으로 1960년대는 과감한 노출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미니스커트는 1960년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1980년대에 다시 보여 지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디자이너들도 이 디자인을 그들의 패션에 적용하였다.<sup>47)</sup> 또한 미니 스커트는 작다는 것이 정말 아름답다는 사실을 보여준 극단적인 예이며<sup>48)</sup>, 미니멀리즘의 단순성과 최소성을 가장 잘 표현한 예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영국의 매리 퀄트(Mary Quant)는 무릎 위에서 8-9인치 올라가는 획기적인 길이의 스커트를<sup>49)</sup> 디자인하였으며(사진 3), 패션사상 최초로 PVC(Poly Vinyl Chloride)를 소재로 사용하여 만든 비옷류를 선보임으로써<sup>50)</sup> 미래지향적인 표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영국의 이러한 패션 경향은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었다. 파리의 디자이너 앙드레 구레주(André Courrèges)도 미니 스타일을 디자인하였는데, 그는 특히 스페이스 룩을 선보임으로써 미래지향성을 추구하였다. 1960년대는 우주여행에 관련된 물체나 색채가 디자이너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소재였다. 이런 스페이스 룩의 특징은 은색과 투명함이었다(사진 4).

이러한 미니스타일은 곧 미국에 전너가 신진 디자이너인 루디 견릭(Rudi Gernreich)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는 1964년 탑리스(Topless)수영복을 발표하여 큰 화제를 모았으며, 여성의 자연스러운 체형과 곡선을 살린 디자인, 혁신적인 소재의 사용으로도 유명하다.

다시 말해 미니의 출현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과는 다르게 사고 방식이나 생활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에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변동인 동시에 18세기 말 이래 긴 세월간 태동을 계속해온 의상 혁명이라 하겠다.<sup>51)</sup>

미니멀리즘의 단순하고 최소적인 표현과 미래지향적인 표현은 입생 로랑(Yves St. Laurent)의 몬드리안 룩, 빠코 라반느(Paco Rabanne)의 알루미늄 원피스, 빼에르 까르뎅(Pierre Cardin)의 기하학적 의상 등에서도 잘 나타났다.

입생 로랑의 몬드리안 룩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형태에 검정색의 수평·수직선으로 분할된 면을 삼원색과 흰색, 검정색으로 채운 의상을 말하며, 형태와 색상에서 단순성과 최소성이 특히 돋보이는 미니멀리즘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빠코 라반느는 투명비닐, 반짝이는 플라스틱 디스크, 금속 체인, 금속조각 등을 사용하여 조끼, 원피스, 드레스<sup>52)</sup> 등을 발표함으로써 단일 형태의 반복 표현, 반짝이거나 투명한 소재, 은색 등을 통해 반복성, 미래지향성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빼에르 까르뎅은 미니멀리즘의 최소색상인 흰색과 검정색을 즐겨 사용하였으며, 스페이스 룩과 기하학적인 형태를<sup>53)</sup> 응용하여 간결한 조형미를 표현함으로써 단순성, 최소성, 미래지향성을 추구하였다.

요약하면, 1960년대의 국외패션은 형태와 실루엣, 색채 등을 통한 단순성, 미니스커트, 탑리스 수영복 등의 형태를 통한 최소성, 문양과 플라스틱 조각을 사용한 단일 형태의 반복사용에 의한 반복성, 스페이스 룩 형태, 금속, 플라스틱, 은색의 사용에 의한 미래지향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사진 3> Mary Quant, 1968



<사진 4> André Courrèges, 1967

## 2) 국내 패션

우리 나라에서는 6·25가 끝난 후 얼마 동안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경제를 살리기에 여념이 없어서 한복을 그대로 착용하였지만 점차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서구 패션을 착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쟁후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면서 현대복을 입는 인구가 늘어났다. 1955년에는 유일한 여성잡지인 '여성계(女性界)' 이외에 '여원(女苑)'이 발간되면서 여성들은 패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다. 강력한 전달효과를 주는 시각매체인 텔레비전도 1956년부터 방송되기 시작되었다.<sup>54)</sup>

1950년대 말의 이러한 사회적 발전이 1960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71)의 추진에 따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패션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또한 섬유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간편하고 실용적인 복식의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의류산업의 기반인 기성복시대의 기틀이 마련되었다.<sup>55)</sup>

이러한 1960년대의 시대 상황에 따라 국내 패션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서구의 패션이 밀려들어 오면서 그들의 패션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서구 패션은 단순한 형태의 미니 스커트와 미래분위기의 스페이는 롱이 그 주류를 이루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서구 패션의 도입되어 착용되었다. 1960년대 초반은 외국의 패션을 모방하였다고 한다면 1960년대 후반부터는 모방에서 벗어나 지각 있는 디자이너들이 패션쇼도 개최하면서 국내 패션의 기반을 다져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섬유 산업의 발달로 그 동안 주로 사용되었던 면직물과 모직물 보다 화학섬유직물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천연섬유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혼방직물도 등장하였다. 복잡하고 바쁜 생활로 인해 착용이 간편하고 손질이 쉬운 화학섬유가 대중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색상의 경우 검정색, 회색 등이 기본색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파랑, 빨강, 노랑, 녹색, 베이지 등의 밝은색 계열과 화려한 문양이 함께 사용되었다.<sup>56)</sup> 그동안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색상은 패션에서 없어

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1960년대 초에는 칼라(collar)가 없는 단순한 형태의 코트가 등장하였으며, 7부 소매와 함께 간결함을 더 해주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칼라가 없는 라운드 네크라인의 단순한 형태로 된 샤넬 수트가 유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핫 팬츠와<사진 5> 미니 스커트가 도입되어 유행하였으며,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미래적인 디자인이 선보였다<사진 6>. 여밈에 있어서도 단추가 아닌 지퍼를 사용하여 착용 방법의 단순성을 추구하였다<사진 5>.



<사진 5> 도재은, 여원, 1967.8



<사진 6> 윤성준, 여원, 1969.9

이상과 같이 1960년대 국내 패션에서도 서구 영향을 받은 미니멀리즘 패션이 나타났으며, 형태, 색상 등을 통해 단순성, 최소성 등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국내외 패션의 특성을 사회적 배경과 함께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1960년대의 사회적 배경과 국내외 패션

| 국내외<br>배경과 패션 | 국 외  | 국 내   |
|---------------|--|---|
| 사회적 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이들의 기성가치 도전</li> <li>· 폐미니즘 운동</li> <li>· 개인주의 강화</li> <li>· 사회개혁의 시대</li> <li>· 과학의 발달</li> <li>· 대중매체의 빠른 확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19 혁명과 청년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li> <li>· 젊은층 문화의 중요시</li> <li>· 5.16과 긴장된 사회 분위기</li> <li>· 경제개발계획에 의한 산업화 추진</li> <li>· 도시화로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가치체계 변화</li> <li>· 경제적 자립기반의 구축</li> <li>· 고속도로 건설 시작</li> <li>· TV방송국 개국</li> <li>· 유행에 대한 관심고조</li> <li>· 서구유행의 직접적 수입</li> </ul> |
| 패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니섹스 경향 지속</li> <li>· 패션의 위치 상승</li> <li>· 안락함과 실용주의 패션 대두</li> <li>· 젊은이들이 패션 주도</li> <li>· 미니 스커트 확산</li> <li>· 스페이스 툭 등장</li> <li>· 금속, 플라스틱, 투명 소재</li> <li>· 은색유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복의 착용감소</li> <li>· 개량 한복 소개</li> <li>· 값싸고 질긴 합성섬유 보급</li> <li>· 미니스커트의 소개와 확산</li> <li>· 플레이 스커트, 뉴룩, H라인, A라인</li> <li>· 하이힐, 샌들, 장갑의 유행</li> </ul>   |

<표 2>에서 1960년대의 국내외 미니멀리즘 패션을 비교해 보면, 형태와 색상에서 미니스커트와 단일색상 등을 통해 단순성과 최소성은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으나, 색상과 소재에 있어서의 미래지향성과 반복성은 국내 패션이 국외 패션에 비해 비교적 적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가 국내의 사회적 배경이 전통적 가치체계가 변화하는 시기로서 국내 패션이 서구 패션을 도입하고 모방하던 단계였으므로 서구 패션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IV. 1990년대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

### 1. 1990년대 국내 패션의 배경

#### 1) 사회문화적 배경

1990년대에는 정치 이데올로기의 퇴조에 따라 세계가 정치적 양극체제에서 경제력에 바탕을 둔 경제적 다원체제로 전환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인터넷과 같은 획기적인 통신과 컴퓨터의 발달로 정보화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대중의 증가로 패션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였고<sup>57)</sup>, 과학 기술의 발달과 공해에 대한 환경문제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었다. 지나친 물질주의와 인간성 외면, 그리고 자연파괴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회의를 가짐으로써 자연으로의 회귀, 옛 것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복식의 경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패션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어<sup>58)</sup>. 복잡한 것을 거부하고 간단하고 단순한 디자인의 패션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의 암울했던 정치시기를 거쳐 1990년대에는 소비와 향락, 개인의 행복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 1990년 초반부터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넓게 나타났다.<sup>59)</sup> 1990년대는 대중매체가 많은 영향을 미친 시기로, 1991년에는 서울방송국이 개국하였고, 1995년에는 케이블방송이 시작되었다. 1993년에는 대전에서 엑스포가 개최되어 여러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990년대는 패션산업도 국제화, 개방화 시대가 되어서 더욱 다양화되고 발전되는 시기를 맞이하였으며, 이 시기에 국내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sup>60)</sup> 또한 해외 수입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해외 의류에 대한 수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수입의류에 의해 국외의 패션 경향이 국내패션에 직접적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으나, 해외 브랜드 선호와 의복에 의한 과소비 풍조가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sup>61)</sup>

1997년도를 전후로 국내에 불어닥친 거품 경제의 붕괴와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소비위축 현상이 일어났으며, 세기말적인 현상,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패션 디자인에서도 기능적이고 실질적인 단순화된 디자인들이 더욱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 2) 국외 패션 경향

1990년대 국외 패션 경향을 선행연구를<sup>62)63)64)</sup> 바

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에는 장식이 거의 생략된 단순한 실루엣의 패션이 유행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절제되고 세련된 감각으로 디테일이 배제된 단일 색상의 단순화된 형태로 표현되었으며,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가 강조된 복식이 액세서리에서 헤어스타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sup>65)</sup>

1990년대는 인구문제와 식량위기, 소비와 자원개발, 자연파괴 등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패션에서도 부각되면서 환경오염으로 지구촌 전반의 위기감이 재활용과 자연보호로 강조되어 디자인, 소재, 색상 등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다.<sup>66)</sup>

디자이너들은 철저히 장식을 배제한 단순한 실루엣의 패션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디자인이 단순한 형태로 됨에 따라 어깨 패드가 작아지거나 사라지게 되었고 안감이 제거되는 경우도 생겼다. 7부 소매의 단추 없는 긴 재킷, 스포츠 감각의 단순한 셔츠, 통이 좁은 슬림 팬츠 등으로 미니멀리즘 패션을 표현하였다.

특히 스판덱스 혼용이 일반화되고 섬유 제작 및 가공 기술이 진보하게 됨에 따라 패션에서 드물게 보여지던 플라스틱, 비닐, 금속 등의 공업용 재료와 미래지향적인 하이테크 가공 소재가 많이 사용되었고 전통 직물과 조화를 이루면서 패션에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색상은 검정과 흰색이 가장 중요한 색상이 되었으며, 자연색, 단색 등도 많이 등장하였다. 즉 1980년대의 다색화 경향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단색화됨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미니멀리즘 패션의 단순한 형태와 색상, 미래지향적 소재가 1990년대에 들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많은 디자이너들은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패션에 반영하였고, 기능적이고 단순한 구성을 추구함으로써 인체의 자유로움을 추구하였다.

## 2.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

### 1) 단순성

#### (1) 형태의 간결화

1980년대 후반 국내 패션계는 여성미를 강조하는 복고풍의 정장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멋과 실용성을 갖춘 패션이 유행을 이끌었으며,<sup>67)</sup> 이러한 경향이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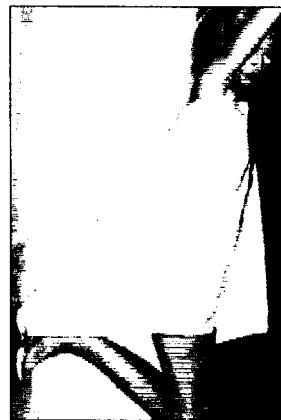
간결한 형태가 1990년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다. 형태의 간결화는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제작 과정의 극소화를 통한, 단일한 형태로의 환원과<sup>68)</sup> 인체를 과장이나 부풀림 없이 그대로 표현하거나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사진 7>은 신장경의 단순한 실루엣의 원피스로 형태의 간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진 8>은 수트로 단순함과 절제를 표현하였다. <사진 9>는 이신우의 디자인으로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기하학적인 형태의 원피스로 간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lt;사진 7&gt; 신장경, '95 F/W



&lt;사진 8&gt; 손정완, ELLE, 1994.12



&lt;사진 9&gt; 이신우, ELLE, 1995.3

### (2) 디테일과 트리밍의 단순화

의복의 전체적인 실루엣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형태와 장식의 경우에도 단순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주로 스포츠 웨어에만 쓰여졌던 지퍼가 1990년대 초반에 여성 정장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여 재킷 앞에 밴드를 지퍼로 처리한 의상들이 선보였다.

칼라 부분이 생략된 디자인이 다양하게 등장하였는데, 라운드 네크라인 이외에 브이 형태의 앞여밈과 연결되어 변형된 라운드 네크라인(<사진 10>), 어깨부분이 노출된 스트랩리스(Strapless) 네크라인 등이 그 예이다(<사진 11>).

199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장식의 생략과 단순화가 단추의 처리 방법에서 많이 보여진다. 안단 안에 단추를 넣음으로써 겉에서는 단추가 보이지 않는 깔끔한 디자인들이 미니멀리즘 패션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었다.

주머니가 생략되고 아무런 장식도 없이 디자인된 수트는 디테일과 트리밍이 모두 제거됨으로써 복식의 단순화가 강조되었다.

### (3) 색상의 단순화

색상의 표현에서도 미니멀리즘적 특성이 나타났다. 여러 가지 색이 섞여 화려했던 패션은 점점 사라지고, 한 가지 색만으로 디자인된 패션이 보편화되었으며, 그 동안 별로 사용되지 않았던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 빨간색 등의 강렬하고 단순한 색상들이 패션에서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2) 최소성

미니멀리즘에서의 최소성은 '예술은 완전히 텅빈 상태로까지 감축시킨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패션에서는 형태의 최소화와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 등에서 최소성이 보여진다.

색상의 경우 재료 그 자체의 자연적인 색상뿐만 아니라 무채색인 흰색과 회색, 검정과 무채색에 가까운 색상인 아이보리와 베이지색 등이 사용되었다. 흰색은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깨끗함과 자연적인 아름다움의 상징을 나타내었으며, 검정색과 함께 색상에서 다채로움을 배제시킴으로써 색상을 통한 최소성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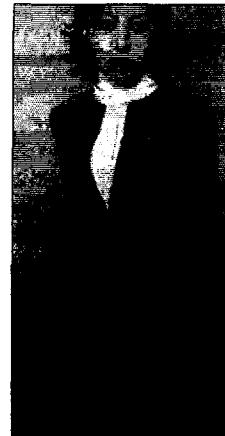
허리 부분이 드러나 금기시되던 배부위가 노출되었는데 이러한 노출 디자인은 형태의 최소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체에 밀착된 패션도 나타나 부피감에서의 최소화를 가져옴으로써 여성들의 신체를 더욱 드러보이게 하였고, 이러한 디자인에는 주로 니트, 스판덱스, 라이크라 등의 소재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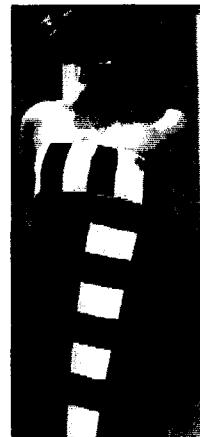
니트류는 1990년대가 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디자인에 골고루 사용되었으며, 스판덱스, 라이크라 등의 소재 또한 신축성이 뛰어나므로 인체의 형태를 그대로 들어 낼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미니멀리즘의 최소성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소재로서 다양한 디자인에 사용되었다.

<사진 12>는 배 부위가 노출된 짧은 상의와 마이크로 팬츠로서 착용면적을 극소화 시켜 형태의 최소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 13>은 박항치의 인체에 밀착되는 의상으로 부피감의 최소화를 표현하고 있다.

바지의 길이도 짧아지게 되어 7부 바지, 9부 바지가 유행되어 형태의 최소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어깨가 노출되거나 끈으로 처리된 상의, 배 부분이 드러나는 짧은 탑, 핫 팬츠와 미니 스커트는 착용면적을 통한 형태의 최소성을 나타내주는 좋은 예이다.



<사진 10> 쏠로, 여성동아, 1998.2



<사진 11> 손석화, 여성동아, 1991.6



<사진 12> 쿠기, ELLE, 1995.7



&lt;사진 13&gt; 박항치, '95 F/W

### 3) 반복성

반복성은 미니멀리즘 양식에서는 거대한 단일 형태 또는 동일한 형태들의 반복적 배열이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패션에서는 인체를 대상으로 표현해야 하는 한계 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문양과 디테일, 트리밍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미니멀리즘 양식에서처럼 반드시 대칭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다.

문양은 의상에 표현되어질 때, 좌우 대칭, 좌우 비대칭, 기하학적 직선, 곡선 등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복성은 복식에서 시선을 유도하는 효과를 주며, 디자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빠르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진 14>은 박항치가 디자인한 블랙 수트로 빨간색 선을 반복해서 덧맴으로써 시각적으로 강한 느낌을 준다. <사진 15>의 루비나의 작품은 원장식을 자유롭게 반복하여 배열함으로써 단순 명료한 반복성을 표현하고 있다.

### 4) 미래지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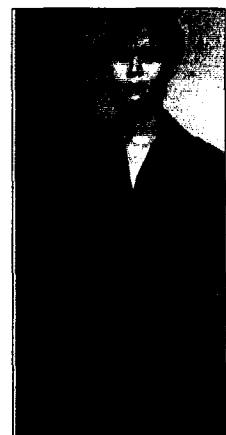
미래지향성은 소재를 통해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으며, 색상과 형태에 있어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소재가 매우 다양화되었다. 광택 소재(glossy fabric), 금속사가 섞인 소재(lamé fabric), 비닐 소재(vinyl fabric)가 다른 소재와 혼합되거나 코팅하는 하이테크 소재의 가공 기술로

자연과 기술 문명의 이중성을 표현하였다.<sup>(59)</sup> 이와 같은 첨단 소재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대다수의 디자이너들이 광택 소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분위기의 디자인을 의상에 표현함으로써 패션에서 미래지향성을 추구하였다. 투명한 비닐의 사용은 미니멀리즘 패션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 1990년대 말까지 꾸준히 사용되었다. 21세기를 바라다 본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소재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쉬폰도 디자이너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그 밖에 색상에서도 은색이 사용되어, 미래지향성을 나타냈으며, 형태에서도 기능적인 복식이 보편화되면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표현되었다.



&lt;사진 14&gt; 박항치, '91 F/W



&lt;사진 15&gt; 루비나, '92 S/S

### 3. 미니멀리즘 양식과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 비교

1960년대와 1990년대의 국내 주요 패션잡지에 소개된 여성복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작품 중 최소, 단순한 등의 표현에 적합한 디자인을 고찰대상으로 하였으며, 미니멀리즘 양식과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미니멀리즘 양식과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

| 미니멀리즘<br>조형성 | 미니멀리즘 양식   |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   |
|--------------|--|---|
| 단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한 형태</li> <li>· 기하학적 대칭구조</li> <li>· 단일색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의 간결화</li> <li>· 디테일과 트리밍의 단순화</li> <li>· 단일색상</li> </ul>  |
| 최소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한의 감각과 본질 추구</li> <li>· 조형수단의 최소화</li> <li>· 미가공 소재</li> <li>· 재질자체 색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의 최소화</li> <li>· 무채색</li> <li>· 재질자체 색상</li> </ul>         |
| 반복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단위의 반복</li> <li>· 형태의 확대적 반복</li> <li>· 정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양의 반복</li> <li>· 디테일과 트리밍의 반복</li> <li>· 자유로운 배열</li> </ul> |
| 미래지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업용 오브제</li> <li>· 은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소재</li> <li>· 기능적인 형태</li> <li>· 은색</li> </ul>            |

<표 4>는 미니멀리즘 양식과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의 관계를 사진으로 제시한 것이다. 1960년대는 국내 패션보다 국외 패션의 특징이 두드러지므로 국외 패션으로 선정하였고, 1990년대는 본 연구의 주제인 국내 패션으로 하였다.

<표 4>에서 미니멀리즘 양식과 패션의 조형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예술양식과 패션의 조형성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단순성과 최소성은 형태와 색상에 있어 특히 유사하게 표현되

미니멀리즘 양식과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을 비교 고찰하면 형태, 색상 등을 통해 단순성과 최소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반복성에 있어서 미니멀리즘 양식에서는 반드시 좌우대칭을 이루는 형태로 표현되는데 비하여, 패션에서는 비대칭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래지향성에서는 미니멀리즘 양식보다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이 소재와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화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반복성은 미니멀리즘 양식에서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배열되지만, 패션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표현되었다. 미래지향성은 미니멀리즘 양식에서는 공업용 오브제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패션이 인체를 고려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패션에서는 비닐, 금속, 플라스틱 등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됨으로써 표현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lt;표 4&gt; 미니멀리즘 양식과 패션의 조형성

| 미니멀리즘<br>조형성 | 미니멀리즘양식 | 1960년대 패션 | 1990년대 패션 | 대표디자이너                      |
|--------------|---------|-----------|-----------|-----------------------------|
| 단순성          |         |           |           | 손석화, 손정완<br>신장경, 이신우<br>진태옥 |
| 반복성          |         |           |           | 박항치, 루비나<br>설윤형, 오은환<br>정미경 |
| 최소성          |         |           |           | 박윤수, 박항치<br>이신우, 이상봉<br>한혜자 |
| 미래지향성        |         |           |           | 김동순, 박윤수<br>이신우, 최연옥<br>한혜자 |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니멀리즘 양식의 조형성을 고찰하고, 미니멀리즘 패션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패션과 예술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국내 패션 디자인 개발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와 1990년대의 국내 주요 패션 잡지에 소개된 여성복과 디자이너의 작품중 최소의, 단순한 등의 표현에 적합한 디자인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으며, 디자인 분석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징은 단순성, 최소성, 반복성, 미래지향성으로 나타났다. 단순성은 기하학적 대칭구조의 단일형태, 단일색상에 의하여, 최소성은 조형수단의 최소화, 재질 자체의 색상과 미가공의 소재로 나타났다. 반복성은 동일단위 형태의 반복적 배열, 단색 또는 두 가지 색상, 동일 소재의 반복으로, 미래지향성은 기하학적 형태, 비재현적 구조, 투명색상 및 반사가능 색상과 은색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성 또한 단순성, 최소성, 반복성, 미래지향성으로 파악되었다. 단순성은 실루엣, 디테일과 트리밍, 색상에서 칼라의 생략, 슬리브리스 의상, 원색 등으로, 최소성은 색상과 형태에서 무채색, 재질자체의 색상 등과, 스판텍스 등을 사용한 밀착 의상과 노출 의상으로 표현되었다. 반복성은 문양, 디테일과 트리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미래지향성은 소재, 색상, 기능적인 형태 등에 의해 표현되었다.

셋째, 미니멀리즘 양식과 국내 패션의 조형적인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예술양식과 패션의 조형성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패션이 인체를 고려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표현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즉, 단순성과 최소성은 형태와 색상에 있어 특히 유사하게 표현되었다. 반면에 반복성은 미니멀리즘 양식에서는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배열되지만, 패션에서는 보다 자유롭게 표현되었으며, 미래지향성은 미니멀리즘 양식에서는 공업용 오브제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나, 패션에서는 특수소재 등이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넷째,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 단순성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미의식과 국내 복식산업의 발전상을 반영하였다. 즉, 1960년대와 1990년대 국내 패션을 비교하면, 단순성과 최소성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반복성과 미래지향성은 1990년대에 그 표현이 증가되었다. 국내외 미니멀리즘 패션을 비교하면, 1960년대와 1990년대 모두 단순성과 최소성은 유사하게 표현되었으나, 국내 패션에서 반복성과 미래지향성은 비교적 적게 표현되었다.

현대 사회가 환경 의식과 기능성 추구의 경향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므로 미래사회에서도 단순하고 간결한 조형에 대한 추구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의한 국내 미니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앞으로의 패션 디자인 개발의 있어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James Laver,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Ltd, London, 1996, p.238.
- 2) J. Anderson Black, Madge Garland & Frances Kennett, 「A History of Fashion」, by orbis Publishing Limited, 1980.
- 3) Franç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New York, 1987.
- 4)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4, p.41-42.
- 5) 김은덕, "현대 패션에 나타난 최소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6) 변지연, "미니멀리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7) 나현선, "복식의 미니멀리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8) 이효진,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 아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복식 29호, 1996
- 9) David B. Guralnik,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Collins Publishers, Inc., 1978, p.905.

- 10)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Longman Group UK Limited, 1989, p.661.
- 11) 「시사엘리트 한영사전」, 시사영어사, 1997, p.471.
- 12) 김희경, "미니멀 아트의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8.
- 13) Kenneth Baker, 김수기(역), 「미니멀리즘」, 열화당, 1993, p.7-8.
- 14) 현대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 1981, p.63.
- 15) Kenneth Baker, 「Minimalism」, New York: Abbeville Press, 1988, p.83.
- 16) 월간미술편, 「세계미술용어 사전」, 중앙일보사, 1996, p.63.
- 17) Phyllis Tuchman, "Minimalism and Critical", Art Forum, May, 1977, p.27.
- 18) Kenneth Baker, op. cit., p.17.
- 19) Ibid., p.16.
- 20) Rosemary Lambert, 이석우(역), 「20세기 미술사」, 열화당미술전서, 1986, p.78.
- 21) Ibid., p.84-86.
- 22) 김희경, op. cit., p.6.
- 23) Kenneth Baker, op. cit., p.10.
- 24) 이효진, op. cit., p.25.
- 25) 임진희, "현대복식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13.
- 26) 윤현섭, 「추상미술과 저의 자아」, 도서출판: 인간 사랑, 1997, p.403-404.
- 27) 김희경, op. cit., p.14-16.
- 28) 정홍숙 외, "20세기 후반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의 환원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가정논총9, 1995, p.121.
- 29) 김희경, op. cit., p.45.
- 30) 배규원, "현대 건축 및 실내 디자인의 미니멀리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33-34.
- 31) 박윤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적색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35.
- 32) 이효진, op. cit., p.27.
- 33) Kenneth Baker, op. cit., p.8.
- 34) Ibid., p.17.
- 35) Rosalind E. Krauss, 윤난지(역), 「현대조각의 흐름」, 도서출판: 예경, 1997, p.299.
- 36) 김은덕, op. cit., p.17.
- 37) 임진희, op. cit., p.17.
- 38) Arnason, H.H., 김수기 외(역), 「현대 미술의 역사 2」, 인터내셔널아트디자인, 1991, p.578.
- 39) Edward Lucie-Smith, op. cit., p.247.
- 40) Rosalind E. Krauss, op. cit., p.233.
- 41) 임진희, op. cit., p.19.
- 42) 박지현, "미니멀 아트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23.
- 43) 박윤희, op. cit., p.35.
- 44) 이호정 외, 「패션비지니스 사전」, 교학연구사, 1997, p.149-150.
- 45) 신상옥 외, 「현대 패션과 의생활」, 교문사, 1999, p.41-42.
- 46) 유송옥 외, 「복식문화」, 교문사, 1997, p.231.
- 47) Phyllis Tortora ·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by Fair child publications, a division of ABC Media, Inc, 1998, p.483.
- 48) 월간 「멋」, 5, 1990, p.285.
- 49) Yvonne Connikie,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B. T., Batsford :London, 1994, p.14.
- 50) Yvonne Connikie, op. cit., p.61.
- 51) 월간 「멋」, 5, 1990, p.285-286.
- 52) 나현신, op. cit., p.39.
- 53) 「20세기 모드의 역사」, 라사라, 1991, p.39.
- 54)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0, p.282, p.320.
- 55) 이호정, 「패션마케팅&패션트랜드 분석」, 교학연구사, 1996, p.34.
- 56) Ibid., p.35.
- 57) 정홍숙, 「서양복식 문화사」, 교문사, 1997, p.405.
- 58) 채금석,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1995, p.290.
- 59) 한완상 외, 「한국사회학」, 민음사, 1996, p.46-47.
- 60) 이호정, op. cit., p.152.
- 61) 최해주, "IMF 체제 직전의 국내 복식에 표현된 가치관과 미의식 고찰", 복식, 48, 1999, p.89-91.

- 62) 나현신, op., cit.
- 63) 이재정,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미니멀리즘 패션에 관한 연구”, 국민대조형논총18, 1999.
- 64) 정홍숙 외, op. cit.
- 65) 나현신, op. cit., p.51.
- 66) 신상옥 외, op. cit., p.55.
- 67) ELLE(한국판), 한국종합미디어, 1993. 11월, p.220.
- 68) 임진희, op. cit., p.13.
- 69) ELLE(한국판), 한국종합미디어, 1995. 3월, p.108.